

# 장성, 식품진흥기금 용자 사업 추진

### 시설개선·운영자금 등...대출금리 1%

### 위생업소 영업주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장성군이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용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9일 장성군에 따르면 '식품진흥기금 용자 지원사업'은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시설개선자금과 임대료·인건비 등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지원

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 등이다. 단,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 미만이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이미 용자를 받아 상환 잔액이 남아있는 업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자는 대출금리 1%로 소요 자금의 80%까지 가능하다. 용자한도액은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화장실 시설개선은 1,0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HACCP 업소 4억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운영자금(임

대료, 인건비)의 경우 업소당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용자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환경위생과 위생팀(061-390-731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식품진흥기금 용자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전일용 기자

# 정남진 장흥물, 설 특별 할인행사

### 오는 26일까지 최대 20%

장흥군은 지역 특산물 온라인 장터인 '정남진 장흥물'에서 이달 26일까지 '설 명절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코로나19 특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와 업체의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군은 비대면 소비가 일반화됨에 따라 각종 할인 행사를 실시하는 것이 온라인 판매량을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 기간 동안 장흥물에서는 장흥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10~20% 저렴하게 구매

할 수 있다.

표고버섯, 한우, 무산김, 청태전, 햅쌀 등 50여개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마련돼 있다.

정남진 장흥물(www.okjmall.com)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2006년에 정식 개장했다. 중간유통단계가 없어 시중보다 5~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장흥군 정정 농특산물과 함께 풍성한 설 명절을 준비하시길 바란다. 철저한 원산지 관리와 지도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며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 화순, 관광진흥기금 시설·운영 자금 지원

### 내달 11일까지 신청 접수...여행·관광숙박업 등

화순군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2년 1차 전남도 관광진흥기금 용자 지원사업' 신청을 2월 11일까지 접수한다.

2022년 1차 전남도 관광진흥기금 용자 지원은 사용 목적에 따라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2개 분야다. 시설 자금은 관광 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목적의 용자를,

운영 자금은 사업체 운영 자금 사용 목적의 용자를 지원한다.

용자 지원 대상 업종은 시설 자금의 경우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한국관광품질인증 숙박업 ▲여행업 ▲관광케도업 ▲한옥체험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투구 내 주차시설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 분류) 중 오락과 관

광체험시설 분류 업종이다.

운영 자금의 경우 ▲여행업 ▲한옥체험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지원서비스업 중 오락과 관광체험시설 분류 업종이다.

대출 금리는 0.5%(3개월 변동금리)다. 상환 조건은 시설 자금의 경우 ▲신축은 4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증축은 3년 거치 4년 균분상환 ▲개보수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운영 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신청은 용자취급은행(광주·기업·농협·하나·한국시티·우리은행)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해 대출 상담을 받은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해 화순군청 관광진흥과 관광기획팀(061-379-3506)에 하면 된다.

용자 지원 대상자는 현장 확인과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3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한도, 자격,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2년 1차 전남도 관광진흥기금 용자 지원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순=이중백 기자

# 영광, 초중고 동계 축구 스토브리그 개최

영광군은 지코로나19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주기 위해 동계 초중고 축구 스토브리그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축구 스토브리그는 초등부 14팀, 중등부 14팀, 고등부 5팀 총 33개팀 700여 명이 참가하여 스토브리그 평가전을 통해 축구기술 향상, 체력강화, 팀워크 극대화 등 실전과 같은 훈련 효과를 거둘 예정이다. 영광군은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7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2022년도 스포츠마케팅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지훈련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영광스포티움과 흥농한미공원의 축구장에서 실시하며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추세로 ▲PCR검사 음성확인 후 훈련 참가 ▲매일 발열체크 ▲훈련시간 외 타팀과의 접촉 금지 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올해 12개의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해 1만 7,200여 명의 선수단을 맞이할 예정이다. /영광=곽용순 기자

# 시민역사교과서 '한 권으로 보는 나주' 발간

### 고대~현대 역사·문화·예술·인물 등 총망라

나주시가 고대에서 현대까지 나주 전체 역사를 아우르는 역사교과서를 발간해 주목된다.

나주시는 전라도 역사·문화·경제의 중심지이자 격동의 한국사 흐름을 좌지우지했던 나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민 맞춤형 역사교과서 '한 권으로 보는 나주'를 발간·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역사교과서는 지난 2020년 신규시책 선정을 통해 자문단 출범을 시작으로 이듬해 2021년 시 승격 40주년에 맞춰 발간을 추진해왔다.

역사학·고고학·전근대사·근현대사·예술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7인이 집필진으로 참여했으며 대학교수,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수단의 역사적 사실 규명 등을 통해 책 완성도를

높였다.

총 237페이지의 '한 권으로 보는 나주'는 지역 명칭 이전의 선사시대와 고대 마한,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고려, 조선, 근·현대까지 총 5가지 테마로 나주의 시대상을 다룬다.

또 6~7장에서는 나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예술과 금동관, 옹관, 나주읍성, 전연염색, 쌀갈나이 등 유·무형자산물을 소개한다.

책의 첫 머리인 1장은 선사시대, 마한의 유적·유물을 통해 영산강을 거점으로 꽃피웠던 독자적 문화와 삼국·통일신라시대 나주의 행정체계를 설명한다.

2장에서는 태조 왕건 스토리와 왕의 고향(제2대 혜종), 전주·나주 앞 글자를 딴 전라도 명칭의 유래, 국가·왕실 주관 행사인 '팔관회' 개최 등에서 비취



지는 고려시대 나주의 위상을 다뤘다.

3장 조선시대는 지방제도 개편에 따른 '나주목'의 위엄, '임진왜란 의병활동' 등을, 4장은 '동학농민운동', '한말의병', '학생독립운동' 등 구국·항일

운동에 앞장섰던 의향 나주의 역사를 집중 조명한다.

해방이후부터 나주의 현재를 보여주는 5장에서는 호남비료공장에서 시작된 산업화 흐름, 민주화 운동, 영산강, 빛가람 혁신도시 유치 성과와 의미 등을 서술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발간사를 통해 "희망찬 나주 미래는 나주를 바로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이 책이 나주가지닌 역사의 힘을 토대로 '나주다운 나주의 미래'를 준비하고 나주를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시민 역사교과서 '한 권으로 보는 나주'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중·고교, 도서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문화시설 등에 배포했다. 시정 누리집 전자책(e-book)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나주=이재순 기자

# 나주, 거리두기 내달 6일까지 3주 연장

### 사적 모임 4인 제한...다중이용시설 오후 9시까지

나주시는 정부의 방역조치 재연장 조치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 17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

도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나주·목포·무안·영암 등 4개 시·군 지역 사적모임인원을 4명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나주시 지역 사적모임인원은 백신 접종 구분 없이 4명까지 허용된다.

동거가족을 비롯해 아동(만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 가능성이 있는 가족 모임 등은 사적모임인원 제한 예외의 경우로 분류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플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이며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백신 접종 증명제 도입 '방역패스'는 최근 정부 발표에 따라 금일부터 11개 업종으로 축소·적용된다.

대상 업종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안마업소이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 성격을 감안해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의 경우 1인 단독모임이 허용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무증상이 많고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고 있어 설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방역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 클릭! 고향 속으로



### 용산농협, 취약계층 '사랑의 쌀' 기탁

장흥군 용산농협 김성용 조합장은 19일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농사 지은 쌀 10kg 60포(150만원 상당)를 용산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김성용 조합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나눔을 함께하기 위해 직접 농사 지은 쌀을 기부하게 되었다"고 기탁 취지를 밝히며 "한파로 힘들어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

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용산면장은 "나눔을 베풀어주신 조합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쌀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전달받은 기탁 물품은 설 명절을 맞이해 용산면의 복지사각지대 등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장흥=이옥현 기자



### 장흥 김정렬 변영회장, 성금 전달

장흥군 용산면 김정렬 변영회장은 최근 용산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취약계층 및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달라며 200만원을 기탁했다.

김정렬 변영회장은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성호 용산면장은 "어려운 시기에

도 불구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회 공헌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용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전달받은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장흥=이옥현 기자



### 장흥 가나모찌이장공사, 200만원 기부

어려운 이웃 위한 나눔 실천 장흥군 가나모찌이장공사는 최근 새해를 맞아 장흥군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예달하며 200만원의 성금을 장흥군에 기탁했다.

최정환 대표는 "힘든시기에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작은 정성을 준비했다"며 "약소한 금액이지만 뜻깊게 사용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흥군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시는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장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은 이외에도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 사업들을 하고 있다. /장흥=이옥현 기자